

#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

Mariarosa  
Dalla Costa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파  
지음

실비아  
페데리치  
서문

김현지  
이영주  
옮김

갈무리

Family, Welfare, and the State

: Between Progressivism and the New Deal

지은이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

Mariarosa Dalla Costa, 1943~

1943년 4월 28일 이탈리아 동북부 트레비조에서 태어났다. 이탈리아 빠도바 대학의 정치법학부 및 국제학부 교수,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자이자 저명한 페미니스트 활동가이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이 처해 있는 환경을 연구하기 위해 이론 및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포테레 오베라이오>, <로따 페미니스따> 활동을 하였고,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하라 캠페인 등 다양한 반자본주의 운동에 수십 년간 참여, 자율성의 발전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셀마 제임스와 함께 쓴 대표 저작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전복』은 여섯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2009년에는 선집 『론, 진주, 꽃, 그리고 여성주의 재생산』이 스페인에서 출간되었다. 저서로 『여성, 개발, 재생산 노동』(G. F. 달라 코스따와 공동 편집), 『자궁 절제술, 여성에 대한 학대라는 사회적 문제』, 『우리의 어머니인 바다』(모니카 킬레스와 공저) 등이 있다. 다수의 논문은 웹진 『커머너』(*The Commoner*, [www.commoner.org.uk](http://www.commoner.org.uk))에서 볼 수 있으며 저자의 자세한 활동은 이 책의 「부록」에서 볼 수 있다.

옮긴이

김현지 Kim Hyun Ji

[vanitasji81@gmail.com](mailto:vanitasji81@gmail.com)

이화여대와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고 이화여대 교양영어실 스태프 및 통번역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아끼 다원이 출산 후 현재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이영주 Lee Youngju

[iamleeyj@gmail.com](mailto:iamleeyj@gmail.com)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하였다. 여성, 젠더, 공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현재 경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 의인잡 지공보

이탈리아

Mariarosa  
Dalla Costa

1970년

## 일러두기

1. 이 책은 Mariarosa Dalla Costa, *Family, Welfare, and the State: Between Progressivism and the New Deal*, trans. Rafiella Capanna (New York: Common Notions, 2015)를 번역하였다.
2. 인명, 단체, 회사, 학회, 협회, 연구소, 위원회, 법률, 지락은 본문에 처음 나오는 곳에 한 번만 원어를 병기하였으며, 색인에 병기하였다.
3. 단행본, 진집, 장기간행음, 보고서에는 굵낫표(『』)를, 논문, 논설, 기고문 등에는 홑낫표(『』)를 사용하였다.
4. 지온이 주석과 율킨이 주석은 같은 일련번호를 가지며, 영역자의 주석에는 [영역자], 율킨이 주석에는 [율킨이]로 표시하였다.
5. 색인은 원서에는 없으며, 율킨이가 작성하였다.
6. 책 속의 이미지와 설명은 한국어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갈무리 출판사 편집부에서 삽입하였다.
7.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의 주요 활동과 주요 저작 목록은 저자가 제공하였다.

아버지 프란체스코와 어머니 마리아 기렐리에게 바칩니다

실비아 페데리치의 서문 9

머리말 17

1 대량 생산과 새로운 도시 가족 질서 28

2 1929년 대공황과 가족 붕괴 59

대공황 60

가족 붕괴 74

3 투쟁 방식과 실업자 결집 91

4 후버와 루즈벨트 127

후버 정부 128

뉴딜 : 최초의 복지 정책 142

뉴딜 : '사회 보장' 체제를 향하여 165

5 여성과 가족, 복지, 유급노동 178

대공황과 여성의 저항 및 투쟁 활동 180

여성과 유급노동 188

가족 제도 강화 204

결론 209

감사의 말 216

옮긴이 후기 218

후주 222

참고문헌 266

부록 :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의 주요 활동 / 저작 목록 283

찾아보기 294

# 뉴딜 시대 미국 최초의 복지 조항들을 통해 들여다본 가족과 여성

자본주의 복지 국가는 어떻게 계급, 성, 인종에 걸쳐  
차별적인 질서를 구성하고 유지하였는가?

우리의 복지 정책은 여성의 자율성을 추구하는가, 종속을 강화하는가?

자본의 착취와 국가의 통제에 맞서 여성의 자율성을 모색하는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의 역작!

『집안의 노동자』에서 뉴딜은 노동계급이 혁명을 일으킬  
위험으로부터 '자본주의를 구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본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이다.

또한, 뉴딜은 가부장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질서를 지속시켰다.

— 실비아 페데리치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따는 1972년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전복』을 발표하였고,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급하라 캠페인을 국제적으로 조직하는 데 선봉에 서있었다. 10년 후, 『집안의 노동자: 뉴딜이 기획한 가족과 여성』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서 달라 코스따는 뉴딜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를 되짚는다. 이 투쟁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는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 재생산의 지형을 새롭게 그려나간다. 그렇다면 뉴딜과 복지 국가가 설립한 여러 기관은 노동계급을 구한 구원자

였는가, 아니면 노동계급이 자율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망가뜨린 파괴자였는가?

달라 코스따는 여성과 국가가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복지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즉, 저항과 투쟁의 역학, 가정 안팎에서 기꺼이 일하려는 또는 일하기 꺼려 하는 상황, 대공황 기간 미국에서 여성이 구호 체계와 맺고 있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복지 체계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17,000 978 89 6195 168 5 03330

